

꽃잎처럼 살아온 노래 인생 30년

전국 순회 공연 갖는
가수 박문옥씨



음악인생 30년을 기념해 5개 도시 순회공연에 나서는 박문옥씨는 자신의 노래에서 '진실성'을 발견해주는 팬들의 성원덕에 힘든 여건속에서도 음악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뭘, 일종의 오기 같은 거죠.”
광주의 대표 가수이자 작곡가 박문옥(52)씨는 ‘지방의 무명가수’가 되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공연하는 이유 중 하나를 이렇게 꼽았다.
박씨가 노래 인생 30년을 맞아 큰 판을 벌였다. 서울 등 전국 5개 대도시 순회 공연을 기획한 것. 지방에서 활동하는 있는 가수에게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일종의 매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에서 음악을 하는 건 참 어렵죠. 순회 콘서트라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에 쫓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박문옥이라는 이름을 아마도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웃음)”
‘꽃잎처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22일 서울여성프라자 봄 아트홀을 시작으로 광주(29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전(5월10일), 부산(18일)을 거쳐 대구(30일)에서 마칩표를 찍는다.

지역 가수 앨범 제작 돕기도
이번 공연에는 인연을 맺어온 장사익·안치환·윤진철·김원중·신형원씨 등이 출연, 축하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씨는 전남대 미술교육과 4학년이던 지난 1977년 직접 곡을 부친 ‘저녁무렵’을 듣고 제1회 MBC 대학가요제에 참여하며 음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소리모아’라는 그룹을 결성했던 박씨는 1997년부터 솔로로 활동하며 ‘양철매미’ 등의 음반을 발매했다.

또 1987년부터 ‘소리모아 스튜디오’를 만들어 자신의 앨범 뿐 아니라 후배들의 음반작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거리음악제, 무등산 풍경소리 등을 통해 지역 문화계를 살찌우는 데도 앞장 서 왔다.

앨범 두장 동시발표 예정

박씨의 대표작은 김원중씨가 불러서 잘 알려진 ‘직녀에게’.
“오래됐지만 민중가요도 아닌듯, 대중가요도 아닌듯한 그 느낌이 생명력을 갖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은유적인 문법란 선생의 가사 덕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구요. 누구에게는 통일을 기원하는 노래일테지만 어떤 아주머니는 술 한잔 마시고 떠난 사람을 그리워 하며 부를 수 있으니까요.”
박씨는 조만간 두 장의 앨범을 동시에 내놓을 예정이다. 정호승·이해인 시인 등의 시에 곡을 부친 ‘절벽’ 등 13곡을 담은 ‘꽃잎인연’과 리메이크 음반 ‘노래 한잔’이 그것이다.
“초등학교 동창 녀석들이 공연에 와서 ‘네 노래는 통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내 목소리에 담아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수록곡은 ‘그 겨울의 찻집’ ‘알뜰한 당신’ ‘사랑스러워’ ‘Vincent’ 등 모두 13곡으로, 특히 가요 위주의 퓨전 국악반주로 편곡해 독특한 느낌을 준다.
“과박한 환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내의 도움이 가장 컸죠. 또 많지는 않지만 제가 부르는 노래에서 ‘진실성’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요. 앞으로는 여유를 갖고 쉬엄쉬엄 작업할 거예요.”
티켓 가격 3만원. 구매자에게는 신보 2장을 무료로 증정한다. 문의 080-505-3030. www.parkmoonok.com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라 장 연주로 듣는 비발디 ‘사계’

올 하반기 음반 예정



지난해 ‘평창의 사계’를 작곡한 강석희 전 서울대 작곡과 교수는 비발디의 사계를 “전세계에서 매일 4분마다 연주된다는 리벨의 ‘볼레로’ 못지 않게 자주 연주되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워낙 인기 있는 곡이다보니 ‘명반’이라 불리는 음반도 많다. 이탈리아 실내악단 이 무지치(I Musici)의 연주는 오랜 세월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고, 아일랜드 태생 나이젤 케네디도 과격적인 해석으로 전세계에서 단일음반으로 가장 많이 팔린 클래식 음반(200만장)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에 낳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한국명 장영주·27·사진)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다. 그는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올 하반기 EMI 레이블로 ‘사계’ 음반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주를 미리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다음달 1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사라 장과 첫 내한하는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공연.
33년 전 구성된 실내악단인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여태껏 아이작 스타인, 기욤 크레마, 아자크 팔빈, 미샤 마이스키, 마르타 아르헤리치, 안네 소피 폰 오테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 협연을 맞춰왔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오늘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강효중씨 국악가요 공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이태백) 제44회 정기연주회가 18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박범훈 곡 국악합주 ‘춘무’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김성기씨가 작곡한 아쟁 합주곡으로 중세 그레고리안 성가의 느낌을 내는 ‘Kyrie eleison(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김상훈씨의 협연으로 초연된다.
또 성에순 전남대 교수가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들려주며 실내악단 ‘슬기동’을 통

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강효중(사진)씨가 ‘꽃넌네야’ ‘아버지의 노래’ ‘그대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 등 국악가요를 선사한다.
마지막 곡은 백대웅씨가 친숙한 ‘진도 아리랑’ 선율을 바탕으로 작곡한 관현악곡 ‘남도 아리랑’이 장식한다. 문의 062-526-03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相生 장서관 한국화展

30일까지 일곡갤러리

한국화가 장서관씨가 일곡갤러리에서 30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장씨는 ‘자연-상생’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세계를 화폭에 담았다.
‘산수’, ‘자연-상생’ 등 연작에서는 실경묘사 보다는 문자와 기호를 통해 사물을 형상화하는 독특한 조형세계를 보여준다.
오늘의 지역작가전, 한국 현대미술의 오늘날, 호남 한국화기수전 등 단체전에 참가



‘자연-상생’

했으며 고려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문의 062-575-3457~9.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여류 서예작가 교류전

20~26일 광주서구문화센터

광주서구문화원이 주관하는 제3회 여류 서예작가교류전이 20~26일까지 광주서구문화센터 갤러리 송에서 열린다.
‘여류 서예작가 아홉사람의 표상과 기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류봉자·정경인·김연희·박숙자·정일순·김정희·신경자·황정숙씨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희)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초청자를 선정했다. 오픈 행사는 20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681-4174.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영주 작 ‘奔車(분차) 빨리 달리는 수레’

할리우드 활동 CGI 전문가 이승훈씨 광주 강연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CGI(Computer generated image·컴퓨터형성이미지) 전문가가 광주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대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소 등은 18~19일 전남대 융복합관에서 ‘할리우드 CGI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CGI전문심화과정’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는 ‘해리포터 시리즈’ ‘스타워즈’ 등 유명 영화의 캐릭터 셋업 과정에 직접 참여한 이승훈(ILM크리처



테크니컬 디렉터·사진)씨가 강사로 참여한다.
일본과 미국에서 활동하며 영화와 100여편이 넘는 3D 광고를 제작한 이 씨는 이번 강연에서 ‘캐리비언의 해적’의 유명 캐릭터인 다비 존스의 문어 캐릭터와 ‘나니아 연대기’의 반인반마(半人半馬) 캐릭터 제작과정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문의 062-350-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최고급관
2관	우아한세계-디지털 (15세)	
3관	마하2.6: 폴스피드 (15세) / 철없는그녀 (15세) / 극락도살인사건 (15세)	
4관	300 (18세) / 마하2.6: 폴스피드 (15세)	
5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6관	우아한 세계 (15세)	
7관	이장과 군수 (12세)	
8관	고스트 라이더 (15세)	
9관	고스트 라이더 (15세)	

Megatizen Day 매주 월~금 영화 4,000원 관람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이장과 군수 (15세)
2관	수 (15세) / 브레이크업 이별후에 (18세)
3관	우아한 세계 (15세)
4관	뷰티풀선데이 (18세)
5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6관	300 (18세)
7관	고스트 라이더 (15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대 <3시간 무료>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항동사랑 영화사랑 • 예매: www.joycbs.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무역회관뒷편)

1관	이장과 군수 (12세)
2관	철없는 그녀의 아찔한 연애편지 (15세) / 블랙북 (18세)
3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4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5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6관	우아한 세계 (15세)
7관	고스트 라이더 (15세)
8관	300 (18세)
9관	천년학 (12세)
10관	고스트 라이더 (15세)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무점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콜롬버스 하남점 (10개관) **절찬리 상영중**

즐거움이 가득 • www.mcl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이장과 군수 (15세)
2관	철없는 그녀의 아찔한 연애편지 (15세)
3관	우아한 세계 (15세)
4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5관	300 (18세)
6관	천년학 (15세)
7관	넘버23 (15세) / 블랙북 (18세)
8관	향수 (15세)
9관	고스트 라이더 (15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탈무래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인터넷 예매 문의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1588-9101